

이왕 용기 내어 시작한 길, 후회 없는 1년을 보내세요.

26 중등 한문 임용 평가원 지역 합격자

- 1. 소개
- 2. 관리형 독서실에서의 하루
- 3. 1차 공부 방법
- 4. 수강한 강의 및 학습 자료
- 5. 마무리

1. 소개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중등 임용 한문 합격자입니다. 저에게 작년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달렸던 시간이었습니다.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은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 싶어, 치열했던 지난 1년의 기록을 남겨보려 합니다.

2. 관리형 독서실에서의 하루

합격 이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와, 이제 더 이상 독서실 안 가도 된다' 였습니다. 1년 동안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도 하지만 저처럼 혼자 공부할 때 집중이 잘 안 되는 분들이라면 관리형 독서실에서 수험기간을 보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독서실에서 치열하게 몰입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고, 하나둘 합격해서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관리형 독서실에 다니는 기간 동안 1차 스테디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스테디에 참여해왔었는데, 결국 '내 공부는 내가 해야하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여 작년은 오로지 관리형 독서실의 시스템 안에서 별도의 스테디 없이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험 직전인 11월 21일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모든 외부요소와 단절한 채 아래의 루틴을 지켜내고자 노력했습니다.

▶ 평일 시간표

시간	루틴	내용
07:00 - 08:30	기상 및 등원	
08:30 - 09:00	[오전1] 워밍업	교육과정 암기 or 어휘 암기
09:00 - 10:50	[오전2] 교육학	지스쿨 설보연 교수님 1년 커리큘럼 수강
11:10 - 12:50	[오전3] 경서	사이버서원 권경상 교수님 강의 수강
12:50 - 14:00	점심시간	점심 산책하면서 교육과정 녹음 파일 반복
14:00 - 15:50	[오후1] 산문	원주용 교수님의 교재에 있는 산문을 백문 독해로 1일 2작품씩 반복 학습 희소 원주용 교수님 1년 커리큘럼 수강
16:10 - 17:50	[오후2] 모고 or 기출	기출 답안 작성 및 분석
17:50 - 19:00	저녁시간	저녁은 체력 소진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보냄
19:00 - 20:50	[밤1] 보충학습	당일 부족했던 공부 보충

21:10 - 22:10	[밤2] 하루 복습	교육학/교육과정/전공 3파트로 나눠서 복습
22:10 - 24:00	귀가 및 취침	늦어도 12시 반 전에는 잠들려고 함

▶ 토요일 시간표 (모의고사 DAY)

시간	루틴	내용
07:00 - 08:30	기상 및 등원	
08:30 - 09:00	[오전1] 워밍업	교육학, 교육과정 벵락치기
09:00 - 10:50	[오전2] 교육학 모고,	교육학 55분 실시 5분 휴식
11:10 - 12:50	[오전3] 전공 A, B 모고	전공 A, 전공 B 각 80분 실시 5분 휴식
13:20 - 14:00	점심시간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밥 먹으면서 쉬기
14:00 - 15:50	[오후1] 모고 답안 확인 및 오답노트	원주용T의 해설 강의를 듣거나, 고전번역DB 사이트, 챗 GPT를 활용하여 스스로 정답 여부 고민 및 점검
16:10 - 17:50	[오후2] 모고 답안 확인 및 오답노트	
17:50 - 19:00	저녁시간	저녁은 체력 소진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보냄
19:00 - 20:50	[밤1] 한시, 소설	한시는 원주용 교수님 한시 교재에 수록된 작가별로 순차적으로 학습
21:10 - 22:10	[밤2] 한시, 소설	소설은 조선전계조소설 내의 작품이나 삼국유사, 삼국사기로 1작품씩 학습
22:10 - 24:00	귀가 및 취침	늦어도 12시 반 전에는 잠들려고 함

▶ 일요일 시간표 (숨 고르는 DAY)

시간	루틴	내용
	늦잠 허용	
13:00 - 15:00	[오후1] 모고 복습	어제 푼 모고에서 자주 틀리는 유형 및 어휘 재점검
15:30 - 18:00	[오후2] 산문 복습	평일 산문 10편 복습 원주용T 강의자료 주석 어휘 암기
18:00 - 21:00	저녁시간	귀가 및 휴식
21:00 - 23:00	가벼운 공부	교과서, 수능특강 훑기 + 추가적으로는 '한국한문교육학회'에 들어가서 논문 자료를 읽기도 했지만, 직접적인 공부로 와닿지는 않았음. 그러나 한문 교육의 동향이나 교과교육론 설정 취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 TIP. 틈새 시간 활용과 건강 관리법

상반기(6월)까지는 식사시간에 편하게 쉬었지만, 7월부터는 틈새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교육학(설보연 교수님) 강의를 틀어두었고, 산책할 때는 제가 직접 소리 내어 녹음한 '2022 개정 교육과정(공통/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 파일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내용을 익혔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반복 청취는 암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체력 관리를 위해 따로 운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공부와 병행하기가 버거워 가벼운 산책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역지로 운동을 하기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환절기 건강 관리입니다. 저는 1차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독감에 걸려 정말 고생했습니다. 시험이 임박할수록 마음이 급해져 몸을 혹사하기 쉬운데,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마세요.

3. 1차 공부 방법

0) 자신의 약점부터 제대로 분석하기

임용 합격을 위해서는 결국 자신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이후, 묵묵히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수생의 경우, 시험지 내의 영역별 점수 확인 후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교육학과 전공 A, B 문제지를 펼쳐놓고, 이번 불합격 요인에 대한 **영역별 패인분석**을 해 보십시오. 각 영역별로 잘한 점, 못한 점, 개선할 점/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2025년 기출 패인 분석한 내용을 일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 패인분석

1. 교육학

잘한 점	못한 점	개선할 점/ 앞으로의 계획
<p>1. 시험장에서 융통성 있게 비벼 쓰기 잘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bad - 교육방법 good : 구성주의 문제 특성, 조나센 지원 요소 - 교육평가 soso : 허용 답안에는 부합했으나, 출제 의도에는 부합하는 답안이 아니었음 - 교육행정 good : 카츠 명칭 빼고는 괜찮음 → 기본기를 튼튼하게 쌓으면 비벼쓰기가 쉽다 <p>2. 공부과정에서 3월부터 모의고사 연습하며 답안지 한 100장은 쓴 것 같음</p> <p>→ 설보연쌤 강조: 효율성 < 효과성</p>	<p>1. 시험장에서 사례 쓰기가 힘들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한 해당 개념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로 떠올리기 쉽지 않았음 - 특히 교육과정 목표 설정의 사례 1번부터 막히니까 당황스러웠던 것 같음 <p>2. 공부 과정에서 불필요한 스터디 과다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지수 기반 개념 인출, 오답 인증 - 상호 답안 채점 스터디 → 그닥 내 공부는 안되었음. 보여주기 공부 <p>3. 권지수 강의도 다 수강하지 못했음</p>	<p>1. 기본기에 충실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번 들을 때, 중요한 이론 완전학습 - 무한 반복 : 2배수, 퀴즈 어플 활용 <p>2. 이론+사례를 같이 생각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교육학 이론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론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메타적으로 사고하면서 공부하기 <p>3. 스터디 X, 설보연 커리를 성실히 수강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강사로 전환시켜 환기 제공 - 맹목적인 탐다운 공부방식은 지양 - 강의 수강 중에도 개념 인출 노력하기

2. 전공한문

	잘한 점	못한 점	개선할 점/ 앞으로의 계획
교과교육론 21/24	1. 15.22 교육과정을 피터지게 외웠음..ㅠ - 덕분에 7점을 편안하게 확보함 (교육과정 통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1. 언어생활과 한자 교과서 살피지 X -2점 감점 : 혼종어 찾기 → 맹목적으로 읽지 말고, 키워드 중심으로 해당하는 내용 찾고, 이해하며 읽기 (아 이 키워드에 속하는 예문에는 뭐가 있구나. 교육학의 이론+사례와 유사) 2. 해석 실력이 부족해서 틀린 문제 -1점 감점 : 기본 해석 실력 (호랑이의 먹이를 이롭게 여김) → 꾸준한 해석 연습으로 자연스럽게 체득되어야 하는 부분	1. 2015, 2022 교육과정 여전히 꼼꼼히 암기 - 녹음, 빈칸 문제, 그냥 줄줄 암기) 2. 교과서/수능특강을 6공에 옮겨쓰고 틈틈이 보자 ① 단문/산문 ② 한시 ③ 논맹 ④ 성어 겉뜻, 속뜻(★), 유래 ⑤ 언어생활과 한자 (★) *고전읽기는 올해 교과서가 나오는가?

경서 6/8	1. 아침 스터디 덕분에 논맹 n회독만 잘했음 - 논어 5회독, 맹자 3회독 - 눈에 한번 발라 어렵풋하게 기억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음	1. 회독 수에 급급했음 - 남들이 다 10회독 했다고 하니 부담감만 많고 정작 내용을 제대로 보지는 않았음. - 그러다보니 A형 논어에서 숨을 영합이라고 했고, B형 맹자에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좀 완벽한 내용 파악은 못한 채 답안 작성한 경향이 있었음. - 특히, b형 맹자 ㉠원인은 시험친 직후의 가채점을 제대로 안해서, 내가 어떻게 썼는지 파악도 불가능한 상태.	1. 회독수를 늘리는 것 < 정확한 내용 파악이 필수 - 사이버서원 강의 5월 전까지는 전범위 1회 완강(발취수강) - 장별로 테마를 구조화시키자. - 구조화 시, 내 나름대로의 사건을 넣지 말고, 책에 명시된 객관적인 근거만 기입할 것 2. 경서 출제 경향성 ① 원전활용 4가지 - 본문 내에서 찾기 - 집주에서 찾기 - 다른 주석에서 찾기 - 장 간 연계 짓기 ② 질문유형 5가지 - 대문문장/대문어휘 의미, 의도 - 말/행동/표현/발생 이유·결과 - 대용어 - 주체
--------	--	--	---

산문 10/16 (점수 매우 아쉬웠음)	1. 지시어가 가리키는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 잘 찾음(b8㉠) 2. 작자가 말한 이유를 잘 찾아냈고, 맥락에 맞는 해석을 해냄(b8㉡)	1. 공부했던 유형의 제재만 잘 쓰고, 나머지는 제대로 못 씀(당연함) 2. 스터디 과의존, 무작정 읽어 뒀음 3.역량 밖의 어휘도 존재했음 시잡 속 어휘: 蔽交	1. 유의미한 글을 확실하게 읽기 여기서 '확실하게'란 어휘력을 기르기 위함임 2. 3산문 마스터하기 - 의미 맥락에 맞게 어휘 풀이. A8: 服이라는 어휘도 경서를 많이 접했으면 맥락에 맞게 감복으로 유추가능했어야 함.
--------------------------	--	---	---

* 3산문: 원주용 교수님 고려시대 산문 읽기 / 조선시대 산문 읽기 / 조선의 산문을 읽다.

특히, 패인 분석한 내용을 프린트하여 자주 보는 노트의 앞장에 붙여놓고 매일 읽으면서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11월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합격자들의 수기 중에 자신의 공부 스타일과 맞는 합격 수기를 한 2-3개 저장시켜두고, 공부하기 힘들 때마다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기 공부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초수나 수석 합격하신 분들의 합격 수기에는 남들과 차별화된 마음가짐이 담겨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3개 정도의 수기를 저장해 놓고 반복적으로 읽었습니다.

1) 기출 분석

(1) 26 to 98 기출에 대한 답안 작성 연습 중요

기출 분석은 수험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저 산문만 맹목적으로 많이 읽는 것은 득이 되는 공부 아니라고 판단해서 거의 전공 공부의 60%를 기출분석에 쏟았습니다. 특히 과거의 기출 문제 요소들이 재기출 되는 사례를 깨달을 때마다 ‘기출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영양가 높은 실질적인 자료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소 8월 전까지는 26년에서부터 98년도까지의 기출 문제를 역순으로 풀어보십시오.(+ 첨언: 평가원에는 02년 기출부터만 나와있기 때문에, 희소쌤플러스 임용 기출 자료실에서 98년도 기출부터 찾아서 학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쓴다면 어떤 방식으로 핵심을 명료하게 적어낼 수 있을지 반복적으로 고민하십시오. 그 이후 9-10월 동안은 26년-20년 6개년의 최신 기출을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풀며 실전 감각을 익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는 예시로 ‘애오잠병서’가 25년에 재기출된 사례와 ‘충주석 효백락천’이 26년에 재기출된 사례를 들고 와 봤습니다. 이 밖에도 과거 기출 자료를 풀다 보면 한번 출제된 기출이 다시 출제되는 사례를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기출은 최근에 출제되는 기출과 출제 유형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안을 적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쓴 답이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문제가 어려워서 흐지부지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프로 버전의 생성형 AI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답안 작성에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생성형 AI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보면서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에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14년도 전공 A형 서술형 5번</p> <p>5. 다음 글에서 밑줄 친 ㉠, ㉡을 각각 국역하십시오. [4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有非子造無是翁曰 日有群議人物者 人有人翁者 人有人翁者 翁何或人於人 或不人於人乎 翁聞而解之曰 人人吾 吾不喜 不人吾 吾不懼 不如其人人吾 而其不人吾 吾且未知人吾之人何人也 不人吾之人何人也 人而人吾 則可喜也 不人而不人吾 則亦可喜也 人而不人吾 則可懼也 不人而人吾 則亦可懼也 喜與懼 ㉠當審其人吾不人吾之人之人不人如何耳 故曰 惟仁人爲能愛人 能惡人 其人吾之人 仁人乎 不人吾之人 仁人乎 有非子笑而退 無是翁因作箴以自警 箴曰 ㉡子都之姣 疇不爲美 易牙所調 疇不爲旨 好惡紛然 盍求諸己</p> <p style="text-align: right;">- 李達衷, 『愛惡箴 井序』</p> </div>	<p>25년도 기출 전공 B형 5번</p> <p>5. 밑줄 친 ㉠을 번역하고, 이 글을 지은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漢字로 쓰고 풀이하십시오. [4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有非子造無是翁曰 日有羣議人物者 人有人翁者 人有人翁者 翁何或人於人 或不人於人乎 翁聞而解之曰 ㉠人人吾 吾不喜 不人吾 吾不懼 不如其人人吾 而其不人吾 吾且未知人吾之人何人也 不人吾之人何人也 人而人吾 則可喜也 不人而不人吾 則亦可喜也 人而不人吾 則可懼也 不人而人吾 則亦可懼也 喜與懼 當審其人吾不人吾之人之人不人如何耳 故曰 惟仁人爲能愛人能惡人 其人吾之人 仁人乎 不人吾之人 仁人乎 有非子笑而退 無是翁因作箴以自警 箴曰 子都之姣 疇不爲美 易牙所調 疇不爲旨 好惡紛然 盍求諸己</p> <p style="text-align: right;">- 李達衷, 『愛惡箴井序』</p> </div>
--	---

<p>10년도 전공 A형 서술형 4-2번</p> <p>(나) 忠州美石如琉璃 千人鬪出萬牛移 爲問移石向何處 去作勢家神道碑 神道之碑誰所銘 筆力偏強文法奇 皆言此公在世日 天姿學業超等夷 事君忠且直 居家孝且慈 門前絕賄賂 庫裏無財資 言能爲世法 行足爲人師 平生進退間 無一不合宜 所以垂顯刻 永永無磷緇 此語信不信 他人知不知 遂令忠州山上石 日銷月鏤今無遺 天生頑物幸無口 使石有口應有辭</p> <p style="text-align: right;">- 權譚, 『忠州石 效白樂天』 -</p> <p>* 鬪: 깎다</p> <p>4-2. (나)는 碑誌類 散文인 神道碑의 位序성을 證한 시이다. 비자유 산문의 位序성을 극복할 수 있는 謄인을 (가)에서 찾아 쓰고, (나)에서 비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요약하십시오. [10점]</p>	<p>26년도 기출 전공 B형 10번</p> <p>10. 밑줄 친 ㉠의 목적을 쓰고, 밑줄 친 ㉡의 의미를 서술하고, 밑줄 친 ㉢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 쓰시오. [4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忠州美石如琉璃 ㉠千人鬪出萬牛移 爲問移石向何處 去作勢家神道碑 神道之碑誰所銘 筆力偏強文法奇 皆言此公在世日 天姿學業超等夷 事君忠且直 居家孝且慈 門前絕賄賂 庫裏無財資 言能爲世法 行足爲人師 平生進退間 無一不合宜 ㉡所以垂顯刻 永永無磷緇 此語信不信 他人知不知 遂令忠州山上石 日銷月鏤今無遺 天生㉢頑物幸無口 使石有口應有辭</p> <p style="text-align: right;">- 權譚, 『忠州石 效白樂天』 -</p> </div>
--	---

(2) 기출 문제를 유형별 항목화하기

위에서 말한 대로 모든 기출을 한번이라도 풀어보았다면, 각 문항을 오리고 스크랩하여 유형별로 항목화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전공에서 주로 어떤 유형의 제재가 빈출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거치게 되면 평소에 산문을 읽을 때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을 산문인지를 구분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19년도 이전의 기출 문제들은 다시 또 출제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출제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과정은 한문 임용을 학습을 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어렵고 힘들지만, 점차 반복되다 보면 나왔던 키워드나 유형이 반복되기 때문에 학습 시간은 점차 단축되고, 자신만의 서랍정리 방식이 머리에 구조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항목화한 유형의 일부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제가 그저 그때 그때 기출 문제를 풀거나 산문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한 키워드들이라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 이런 방식으로 유형화했다고만 파악하시고, 각자의 성향에 따라 기출에 나온 유형을 항목화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25년~16년도 기출까지만 유형화 분류 작업을 해서 3공 바인더에 오리고 붙여서 유형별로 각각 정리해 놓았었습니다.)

문항별 항목화 예시
① 교과교육론 :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단어의 짜임, 품사, 어휘, 성어, 명언명구, 문장의 구조와 유형, 산문, 전통문화, 한자문화권 ...
② 설문해자
③ 품사
④ 문체 비지류 작성의 폐해, 기사문의 특징, 김택영의 편짓글(국가가 망한 상황에서 자신이 보여야할 역할)
⑤ 문학 : 문학사, 문학관(사대부들이 지향하는 문학) 교재, 공부방법, 수사법, 사문(斯文)과 이단
⑥ 한시 : 한시사, 수사법(함축, 비유, 이규보의 신의론..), 진정한 시란, 시에 대한 평가, 작자의 신세와 처지, 사회비판
⑦ 소설 : 소설사, 가전제, 애정, 충신, 전쟁, 효, 기인(奇人)
⑧ 산문 (경서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분류함)
㉠ 인격수양: 개인 내적 수양관, 윗사람이나 부형(父兄)을 대하는 자세, 그 외 경서 속 인물들의 출처관, 처세관, 현달, 은거하는 자세
㉡ 제도: 과거제도(문형, 대제학, 폐해), 조정관련 어휘(외교문서, 의례 행사, 당파, 언관), 조세제도, 제사, 자와 호, 불교
㉢ 인물 평가: 논맹 속 인물, 한시를 대표하는 인물, 시대별로 문장을 대표하는 인물, 충신형 인물
㉣ 사물 비유: 연꽃, 소나무, 문방사우, 사군자(매난국죽), 동물 중 고양이, 호랑이, 잉어

(3) 답안 작성 팁, 99% 이해한 글이 아니면 최대한 문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직역해라

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문장을 읽을 때, 자꾸 제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을 집어넣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글을 90%로 이해하고 자의적인 판단을 넣은 답을 작성하면 완성도 높은 답안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글을 얼마나 유려하게 잘 쓰는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채점 기준표에 들어있는 요소에 얼마나 부합하는 답을 작성했는지, 그 답이 3명의 채점관에게 만장일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답인지 충족해야 하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은 직역을 하되, 최대한 우리말로 생각했을 때, 문맥에 맞는 깔끔한 답안을 만드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직역에 충실하면 문맥이 맞지 않는 문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직역에 충실하되, 해석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술 호응 관계를 잘 맞추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 경서

(1) 모든 글은 논어와 맹자에서 뺏어나간다 (회독 수 < 깊이 있는 이해)

조선시대 산문이나 한국 한문학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논어와 맹자의 구절을 인용하거나 그 논리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논맹'이 탄탄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산문 실력이 향상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읽고 풀이하는 수준의 기계적인 회독은 지양했습니다. 대신, 단 한 번을 읽더라도 문맥과 의도를 완벽히 파악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

본기는 사이버서원의 권경상 선생님 강의를 통해 다졌습니다. 원문을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는 강의를 통해 경서의 기본 뼈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역본에 의존하면 내가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는 철저히 백문(원문만 있는 텍스트)을 보며 어떻게든 제 스스로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논어 같은 경우는 백문을 보며 이 문장이 왜 이렇게 해석되는지, 다른 해석(단어 의미, 구두, 문법 차이 등)의 가능성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맹자는 호흡이 길 기 때문에 백문을 읽으며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맹자의 논리 전개 방식을 파악하여 다음에 어떤 문장이 올지 예측하며 읽기를 매번 반복적으로 훈련하니, 나중에는 긴 지문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니 작년 한 해 동안은 5회독 정도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음에도, 문리가 트여 한국 한문 산문까지 수월하게 독해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2) 경서에 대한 오답 노트로 빈틈 메우기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한 마음에 경서를 무리하게 회독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회독 시에는 내가 자주 틀리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평소 회독하며 헛갈렸던 어휘나, 매끄럽게 해석되지 않았던 문장들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이 약점 리스트만 반복해서 보며, 이미 아는 내용은 과감히 넘기고 모르는 부분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효율적인 마무리를 했습니다.

3) 산문

(1) 깊이 파고들어야 넓게 보인다

산문 공부를 시작하면 누구나 '한 작품을 자세히 볼 것인가' 아니면 '최대한 많은 작품을 접해볼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저는 하나의 작품이라도 깊게 파고드는 연습부터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두 번 쓱 읽고 지나간 100개의 지문은 이틀만 지나도 머릿속에서 휘발되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 하나의 작품을 주기를 두고 반복적으로 보며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그 과정에서 문장의 구조가 보이고 작가의 논리가 읽히는 문리(文理)가 트이게 됩니다. 이렇게 트인 문리는 처음 보는 낯선 지문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즉, 하나를 깊이 있게 보는 것이 결국은 많은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2) 주어진 자료에 충실하기

앞서 말씀드린 제 공부 방향에 따라 저는 시중에 존재하는 산문 자료를 무한정 늘리면서 학습하기보다는, 제가 선택한 강사의 커리큘럼을 완벽히 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원주용 교수님의 저서인 『고려시대 산문 읽기』, 『조선시대 산문 읽기』, 『조선의 산문을 읽다』 이 3권의 기본서와, 매주 제공되는 '맥잡기 자료'만큼은 씹어먹겠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사실 N수생이라 시간이 넉넉할 것 같지만, 이 기본 자료들을 제대로 반복하고 소화하기에도 시간은 늘 빠듯했습니다. '여한십가문초'나 방대한 '공정회 산문'까지 손을 뻗지 않고, 주어진 교재와 자료만이라도 100% 내 것으로 만들자는 전략으로 반복 학습했던 것이 합격의 비결이었습니다.

4) 교육과정,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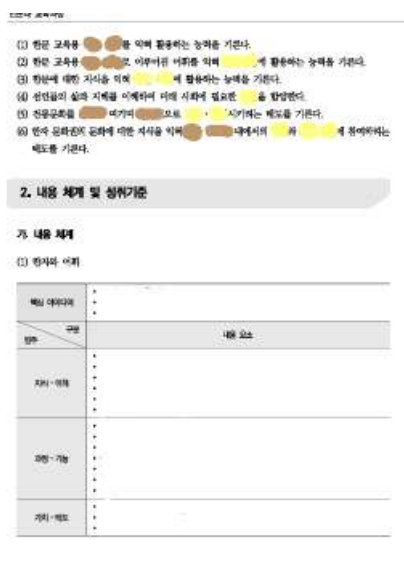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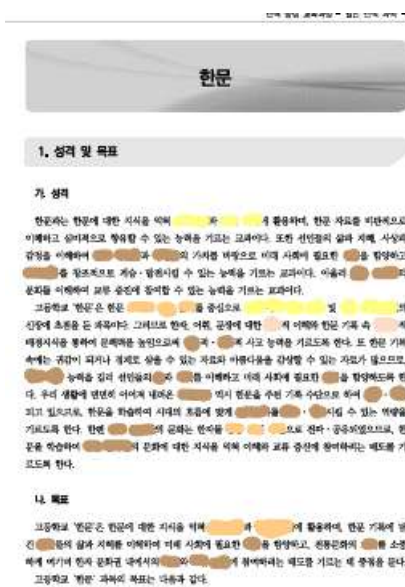
(1) 교육과정

이번 시험을 통해 교육과정 문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단순히 내용 체계표,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정도만 외우고 들어간 수험생들은 당황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최근에는 성취기준 해설과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등 구석구석에 숨겨진 키워드를 정확히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특히 2015 개정에서 2022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추가되거나 삭제된 변화를 완벽하게 숙지해야만 답을 적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격부터 평가의 방향까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한문 임용 시험에서 유일하게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영역이자, 전체 배점의 24점을 차지하는 전략 과목입니다. 누군가는 무식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저는 빈칸 뚫기를 통해 조사 하나까지 챙기는 맹목적인 암기를 추천합니다. 시험 당일,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는 이해보다는 자동화된 암기가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손이 먼저 반응하여 키워드가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달달 외우십시오. 특히, 자투리 시간 활용하여 교육과정 녹음 파일을 이동 시간이나 밥 먹는 시간에 틈틈이 들으며 귀에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2 개정만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법 개념이나 모호한 부분은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 문장을 찾아보며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교육과정을 혼자서 완벽하게 암기해내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그만큼 고통스럽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만약 제가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간다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 장영희 선생님의 교육과정 암기 특강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방대한 양을 혼자 감당하려다 지치기보다는, 교수님의 강제적인 틀 안에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강의를 통해 암기의 맥락을 잡고, 강제성을 부여하여 완주해 내는 것이 단기 합격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 빈칸 뚫기 암기 방식 (기화펜을 활용해서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음)

21. 1월 1주	21. 2주	21. 3주	21. 4주
1월 1주	1월 2주	1월 3주	1월 4주
1월 5주	1월 6주	1월 7주	1월 8주
1월 9주	1월 10주	1월 11주	1월 12주
1월 13주	1월 14주	1월 15주	1월 16주
1월 17주	1월 18주	1월 19주	1월 20주
1월 21주	1월 22주	1월 23주	1월 24주
1월 25주	1월 26주	1월 27주	1월 28주
1월 29주	1월 30주	1월 31주	1월 32주

22. 1월 1주	22. 2주	22. 3주	22. 4주
1월 1주	1월 2주	1월 3주	1월 4주
1월 5주	1월 6주	1월 7주	1월 8주
1월 9주	1월 10주	1월 11주	1월 12주
1월 13주	1월 14주	1월 15주	1월 16주
1월 17주	1월 18주	1월 19주	1월 20주
1월 21주	1월 22주	1월 23주	1월 24주
1월 25주	1월 26주	1월 27주	1월 28주
1월 29주	1월 30주	1월 31주	1월 32주

→ 22 내용체계표, 교수학습방법 한 눈에 모은 자료 (독서실 좌석 앞에 붙여놓고 맹목적으로 암기함)

(2) 교과서

교과서 지문은 교육과정 문제와 연계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과서 지문은 쉽다고 생각하여 눈으로만 훑고 지나가기 쉬운데, 막상 직접 해석해 보면 은근히 막히는 구문이나 한자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원문을 직접 손으로 써보고, 스스로 구두(句讀)를 끊어가며 해석해 보는 연습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진짜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호흡이 긴 산문 지문에 지쳤을 때, 교과서나 수능특강을 펼쳐보십시오. 상대적으로 친숙하고 짧은 지문들은 지친 머리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평일 핵심 공부 시간에 이를 배치하기보다, 자투리 시간이나 주말에 가볍게 읽는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최근 임용 시험의 경향을 보면 교과서 수록 지문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실제로 2025학년도에는 이양연의 <야설(夜雪)>이, 2026학년도에는 두보의 <절구(絶句)>, 경주 선덕여왕 시대의 첨성대 관련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이처럼 교과서로 미리 접해봐서 아는 지문이 문제로 나오면 여타의 고난도 지문을 독해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 지문을 미리 숙지해두면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수업 실연 준비 시에도 지문 분석 시간을 줄이고 수업 설계에 집중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전공 모의고사 활용법

(1) 모의고사는 최소 2회독 이상

저는 N수생이었다 보니, 원주용 교수님이나 정명수 선생님의 연도별 선행 모의고사와 실전 모의고사 자료들이 꽤 많이 쌓여 있었는데, 단순히 자료를 가지고만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세우고 모의고사 자료들을 최소 2번 이상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1회독: 실전처럼 시간을 재고 풀며 나의 취약점과 구멍 난 개념을 확인

2회독: 다시 풀었을 때도 틀리는 문제를 점검하고, 출제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했는지 검증

이렇게 다양한 문제로 반복 학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니, 낯선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 매주 토요일은 실전 연습하는 날

장수생이나 N수생일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부터 시험 직전까지, 매주 토요일을 '실제 시험 치는 날'로 지정하여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연습이 쌓이다 보니, 나중에는 토요일 9시만 되면 저절로 뇌가 시험 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덕분에 실제 시험 당일에도 긴장감을 낮추고 평소 토요일에 문제 풀던 습관처럼 편안

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6) 교육학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이번 시험에서 투자한 시간과 비용 대비 교육학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했기에 아쉬움도 컸지만, 복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범했던 결정적인 패배 요인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익숙함을 실력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수험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익숙함입니다. N수생들은 “아, 이거 아는 거지” 하고 무심코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점검해보면, 단순히 청킹이나 키워드만 겹핥기로 기억하고 있을 뿐, 정작 그 개념의 정의, 특징, 장단점을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장수생일수록 0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겸손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구두 인출**을 통해 구멍난 개념을 메우시길 바랍니다.

둘째, **영역별 구조도 암기로 머릿속에 확실한 서랍을 만드십시오.**

단편적인 암기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의 구조화입니다. 교육학이라는 방대한 지식을 머릿속에 무작위로 쌓아두지 마시고, 명확한 서랍을 만들어 정리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핵심 5대 영역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평가, 교육행정, 교육심리’를 큰 뼈대로 삼으십시오. 특정 이론이나 학자의 이름이 나왔을 때, 이 내용이 어느 영역의, 어떤 세부 항목에 속하는지 1초 만에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조도가 머릿속에서 자동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 시험장에서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식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셋째, **답안지에는 핵심을 담되, 간결하게 쓰십시오.**

저는 이번 시험에서 열심히 한 티를 내야지라는 마음으로 답안지 2장을 뽁뽁하게 채우는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감점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장황한 서술은 오히려 핵심 키워드를 가리고, 논지를 흐릴 뿐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배점 요소)을 정확히 파악한 뒤, 채점자가 찾고 있는 핵심 키워드와 그에 부합하는 사례만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

교육학은 20점, 전공은 80점입니다. 점수 배점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더 힘을 쏟아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주체는 전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교육학 공부는 하루 최대 오전에 2시간 정도만 할 것을 권장합니다. 2시간 동안 밀도 있게 집중하고, 나머지 에너지는 전적으로 전공 공부에 쏟아부으십시오. 불안한 마음에 교육학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합격과는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 수강한 강의 및 학습 자료

1) 수강한 강의

교육학: 설보연 교수님 1년 커리

전공: 원주용 교수님 1년 커리

2차: 장영희 교수님 2차 실전반 (1차 합격자 발표 이후부터 3주간 대면으로 진행)

2) 학습 자료

교육학) 2026 설보연 SANTA 교육학 기본서, 단권화 / 7-9월 영역별 모의고사 / 9-11월 합격 모의고사

경서) 논어 맹자 안설 / 손에 잡히는 논어, 맹자

- 안설: 주자 주 뿐만 아니라 다른 주석, 어휘 설명까지 보려고 구매했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적혀있어서 오히려 헷갈릴 때도 있었음.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파란책(논어, 맹자집주)으로 학습해도 충분함..
- 수진본(추천): 이동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 대문을 눈에 자주 익히려고 구매함.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추천 (대유학당, 손에 잡히는 논어, 맹자)

산문) 고려시대 산문 읽기, 조선시대 산문 읽기, 조선의 산문을 읽다 / 한국산문선 3,4권 / 고문진보 후집 당송 팔대가 일부 작품 발췌 / 원주용 교수님 2026 강의 자료 (+ 원주용 교수님이 추천해주시는 작품 일부 목록)

한시, 시화) 고려시대 한시읽기 / 조선시대 한시읽기 上·下 / 시화 속의 한시 이야기

교과서) 22 고등 9종 교과서 / 2026 수능특강 / 원주용 교수님 카페 자료실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통합본(2015)

(+ 22 언어생활과 한자 7종: 언어생활과 한자 교과서는 고등 교과서에 비해 단어만 나열되어 있는 느낌이라 어떤 식으로 읽어나가야 할 지 잘 모르겠어서 읽어도 머리에 잘 안 남았음... 단, 각 성취기준에 나와있듯이 혼종어, 상하위어, 완곡어의 사례로 어떤 어휘가 있을지 교과서 보면서 훑어보는 정도로 봤었음.)

교육과정) 2022, 2015, 2009, 2007 개정 교육과정

* 2007, 2009 교육과정은 문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문이나 설명을 파악하거나 15나 22에 나오는 구체적인 성취기준 사항에 대한 설명을 알고 싶을 때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함

어휘) 원주용 교수님 한문 임용 어휘 완전정복: 고전산문편 / 원주용 교수님 강의자료 하단의 주석 어휘들

모의고사) 원주용 교수님 24,25,26 대비 모의고사 및 6월 공개 모의고사 / 정명수 교수님 24,25 모의고사

기출) 기출 자료 98-25년도 (98-00년도는 희소쌤플러스 임용 자료실에서 / 02-26년도는 평가원 자료실에서)

정우영 교수님 온고지신 기출 해설 교재(절판)

5. 마무리

수험기간 동안 저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파묻혀 무너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특 건드리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럴 때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책상 앞에 앉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비교가 아닌 집중이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기보다, '오늘 남은 한 시간이라도 공부하자.'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책으로 우울해질 시간을 줄여 한 글자라도 더 보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힘들다고 가족에게 짜증을 내면 오히려 운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논어의 색난(色難)이라는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나의 힘들이 무례한 태도가 되지 않도록 경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저를 믿고 지지해 주는 주변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감사함을 가지는 것, 그것이 특히 한문 임용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필연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늘 해주시던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붙는 시험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임용이라는 벽이 아무리 높고 견고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바위를 뚫는 물방울입니다. 수적천석(水滴穿石)의 마음으로 끈기 있게 버티십시오. 간절히 바라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우직하게 달려가십시오. 저 또한 앞으로 한문 교육을 이끌어갈 여러분을 존경과 응원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